

박지성, 영원한 전설로 남다

국가대표 은퇴...“11년 태극마크 행복했다”
 “내 뒤 이을 선수는 손흥민·김보경 될 것”

11년간 한국축구 대표팀을 이끌던 박지성(30)이 진한 아쉬움 속에 끝내 은퇴 의사를 밝혔다.

박지성은 3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물러나는 게 대표팀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은퇴 결정을 잘 받아주고 배려해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자 다소 표정이 무거워졌다. 11년간 줄곧 달았던 태극마크를 내려놓는 만큼 진한 아쉬움을 감추지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지금껏 대표팀 생활을 하며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처음 대표팀에 발탁됐을 때였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대표팀 유니폼을 십 년 넘게 입을 수 있었던 건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 아쉽다”고 전했다. 박지성은 “(이)정수형과 (차)두리형 등 대표팀 형들도 있는데 먼저 떠나게 돼 미안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적기라고 생각했다. 대표팀 일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 도움 될 일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성과 일문일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로서는 대표팀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 만일 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면 그런 당시 대표팀 선수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본선에서도 그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

-팬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선수였는지는 많은 팬들이 판단할 것이다. 대표팀 옷을 입고 뛰는 동안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려 노력했다.

축구선수로서 내 목표는 항상 동료 선수나 코치, 팬이 봤을 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게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아직 젊은데 대표팀에서 은퇴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갈게 보고 판단했다. 어린 선수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이번 아시안컵에서 입증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지금 물러나는 게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재목은 누구라고 보나.

▲젊은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 내 포지션으로 굳이 뽑는다면, 손흥민과 김보경, 이 두 명이 가장 유력하다. 손흥민은 어린 나이인데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였다. 김보경과는 남아공 월드컵과 아시안컵 때 같이 있었다. 성장 가능성이 커 보였다.

-선수 생활 은퇴는 언제 할 건가.

▲굳이 몇 년도에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다. 앞으로 최소한 3-4년 정도는 뭘 것으로 보고 있다.

-11년간 대표팀에서 뛰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과 아쉬운 순간이 있었나.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대표팀 발탁 소식을 들었을 때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바로 이번 아시안컵이었다.

-대표팀 주장 자리를 맡았던 소감은 어떤가. 차기 주장에게 한 말이다.

▲대표팀 주장 완장의 무게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 해보고 나니 그동안 주장을 맡았던 선배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차기 주장도 자기 능력뿐만 아니라 팀 선수 모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장이 됐으면 한다.

-자신 경기 계획은.

▲자선사업은 한국이라는 틀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서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캡틴' 박지성 축구대표팀 은퇴

'캡틴' 박지성(3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지난 11년 동안 가슴에 달아왔던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박지성은 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날짜로 대표팀에서 은퇴하기로 했음을 조심스럽게 밝힌다”며 “국가를 대표해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며 자랑이었다”고 밝혔다.

출생일 1981.2.25
신장 178cm
체중 73kg
학력 명지대학교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포지션 미드필더

주요경력
 2000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2000~2003 코파 델 리에 상(일본)
 2001 컨페더레이션스컵 국가대표
 2002 제17회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 체육훈장 맹호장
 2002.12~2005.06 PSV 아인트호벤(네덜란드)
 2003 피스컵 국제축구대회 골든볼
 2005.0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잉글랜드)
 2006 제18회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
 2010 제19회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경력
 1999~2004 U-23 국가대표 : 20경기/3골
 2000~2011 국가대표 : 100경기/13골

“이범호 보상선수 신인 제외”

KBO 재확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의 보상 선수에서 신인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방출된 이범호(30)와 1년간 FA 계약한 KIA 타이거즈는 이범호의 국내 원 소속구단인 한화 이글스에 올해 입단한 신인 선수와 보호선수(18명)를 빼고 보상 선수 명단을 제시한다. KBO는 지난 31일 유영구 총재 주재로 실무회의를 갖고 FA 보상 선수 범위에서 신인은 빠진다는 해석을 내리고 KIA, 한화 구단은 물론 나머지 6개 구단에도 일괄 통지했다.

한화는 FA 보상 선수 규정에 ‘신인선수’를 빼는 내용이 없고 이범호가 FA 계약만료일(1월15일)을 넘겨 지난 27일 KIA와 사인한만큼 보상기회(최대 14일·2월13일까지)에 신인을 포함한 소속 전체 선수 등록일(31일)이 들어가기에 당연히 신인도 보상선수에 넣어야 한다

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화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인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선수간 트레이드를 제외하고 입단 후 1년간 양도할 수 없다’는 야구규약 109조에 정면 배치된다.

KBO는 또 FA 보상 선수 규정에 신인이 빠졌지만 두 가지 근거에서 해석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KBO 관계자는 “어찌됐든 1월15일까지 FA 계약기간이고 이전까지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FA 계약만료일은 1월15일까지라는 원칙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KBO는 또 총재가 FA 계약에 승인·공시하는 시점이 아무리 늦어도 1월31일 이전이고 FA를 데려간 구단이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 명단을 제시할 근거는 전년도 11월30일 발표된 보류선수 명단이 돼야 하므로 신인선수가 포함된 전체 선수 등록명단과는 무관하다는 게 KBO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구자철 獨 분데스리가가 뿔다

볼프스부르크와 3년 6개월 계약

주전 경쟁 험난·손흥민과 맞대결

2011 아시안컵에서 5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올랐던 구자철(21)이 독일 분데스리가 VfL 볼프스부르크에 입단하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됐다.

제주는 지난 31일 “볼프스부르크와 구자철의 이적에 대해 합의했다. 볼프스부르크와 구자철의 계약 기간은 3년 6개월이다”고 밝혔다.

구자철은 지난 29일 아시안컵 3-4위전을 마치고 곧장 독일로 넘어가 볼프스부르크와 이적 협상을 벌였고, 이날 입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적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구자철은 아시안컵에서 호흡을 맞췄던 대표팀 막내 손흥민(함부르크)과 분데스리가에서 태극전사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945년 창단한 볼프스부르크의 모기업은 독일의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으로 지난 2008-2009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팀 창단이

후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번 시즌에는 5승8무7패(승점 23)로 정규리그 12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 볼프스부르크의 사령탑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스티브 맥클라렌 감독이다.

아시안컵에서 새도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구자철의 1차 경쟁 상대가 바로 디에구(26)다. 디에구는 2006~2009년까지 브레멘에서 84경기를 뛰며 무려 38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치며 지난 시즌 유벤투스(이탈리아)로 이적했지만 33경기에서 5골밖에 넣지 못해 이번 시즌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했다.

이번 시즌에는 16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예전 기량을 회복하고 있어 구자철로서는 쉽지 않은 경쟁 상대다. /연합뉴스

윤석영·홍철·남태희 대표 발탁

〈전남〉 〈성남〉 〈발랑시엔〉

조광래호 10일 터키와 친선경기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영표(알힐랄)의 빈자리를 메울 선수로 지목한 수비수 윤석영(21·전남)과 홍철(21·성남)을 대표팀에 불러들였다.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젊은 공격수 남태희(20·발랑시엔) 역시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조광래 감독은 2월10일 오전 3시(한국시간) 터키 트라브존에서 치를 터키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앞두고 새 대표팀 명단을

확정해 지난 31일 발표했다.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23명의 선수 중에서는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힌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를 비롯해 골키퍼 김용대(서울), 수비수 광택(교토상가)과 조용형(알라안), 미드필더 염기훈(수원), 공격수 유병수(인천) 등이 빠졌다.

대신 조 감독은 홍철과 윤석영, 남태희 등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을 새로 대표팀에 합류시켰다.

윤석영은 2009년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과 지난해 광주주 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급성장했고, 홍철도 광주주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유망주다.

2009년 발랑시엔에 입단한 한국 축구선수 중 최연소 유럽 리그(1군) 진출 및 데뷔 기록을 세운 남태희는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한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그램 5기 멤버로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딩에서 축구 유학을 하면서 일찌감치 큰 무대 경험을 쌓았다.

아시안컵에 참가하지 못했던 주축 공격수 박주영(26·AS모나코)도 대표팀에 가세한다. 지난해 10월 일본과 친선경기에서 2년 만에 대표팀 복귀전을 치렀던 최성국(28·수원)도 합류한다. 터키와 친선경기에 참가하는 22명 중 국외파는 9명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